

이 땅을 오염시킨 사악한 인연의 끈

소포클레스의 비극과 파졸리니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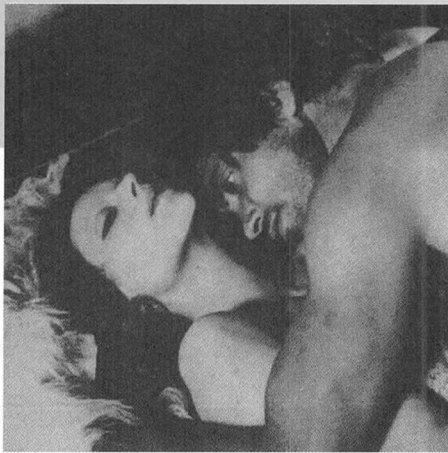
송희복

영화평론가

무대미학으로는 느낄 수 없는 영상미학이 돋보이는

파졸리니의 기념비적인 영화 <오이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의 원작과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가증스런 예언과 함께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의 아이가 바로 오이디푸스다. 키타론산에 버려진 후 한 양치기에게 우연히 발견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갓난 아이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의 왕과 왕비의 양자로 자란다. 장성한 그는 그 '살부혼모'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신탁에 피로워하면서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토를 떠나 여로에 오른다. 그는 여로에서 종자를 거느린 한 노인과 만나 시비가 붙게 되자, 이들을 살해한다. 그는 테베에 당도했다. 이때 테베는 여자의 얼굴에다 몸은 사자의 모습을 한 스피르크스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스피르크스가 제시한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를 구한다. 이제 이 도시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선 홀로 된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오랫동안 이 세속의 도시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가뭄과 역병이 휩쓸게 되고... 그는 신이 진노하는

라이오스의 살해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쓴 끝에 그 살해자가 자신이며 이오카스테는 자신의 생모임을 알게 된다. 눈을 찔러 스스로 맹인이 된 그에게 내려진 것은 추방의 형벌. 그는 또 다시 유랑의 여로에 나선다.

오이디푸스 신화를, 옛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는 통일된 극의 형식으로 표현해 그 신화가 지닌 암시적인 신비성을 보존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오이디푸스 신화의 서사구조는 비극에 이르러 시적으로 응축되고 극적으로 통일된다. 비극의 무대 위에는 이 이야기가 다만 오이디푸스 생애의 최후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에피소드만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나타낸다. 한마디로 말해, 《오이디푸스 왕》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비극 중의 비극으로 칭송돼 왔다. 그것은 비극의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기호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 운명여,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암흑! 나를 온통 휩싸고 조여오는 검은 구름!

대적할 수도 형언할 수도 없는 어둠여,

너는 순풍을 타고 왔구나!”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의 영화 <오이디푸스 왕>(Edipo Re, 1967)은 비극을 영상화한 것으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먼저 원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원작에서의 오이디푸스는 지혜

를 표상하는 현자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세속의 법을 지배하나 자신의 감정과 운명의 법칙에 지배되는, 성급하고도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 원작에서 그는 지혜로써 스피르크스를 물리치지만, 영화에서는 스피르크스와 결투를 벌여 죽여버린다. 원작이 탐색담(Vision-Quest)적인 구성으로 이뤄졌다면 영화는 액자소설 내지 연대기 형식으로 재구성됐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파시즘이 지배하던 현대를 배경으로 삼은 것도 특색이다. 너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지 말라는 충고를 받고 코린토에서 테베로 향하는 오이디푸스. 자막으로 처리된 독백이 매우 인상적이다.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청춘여.

너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여.”

황량한 대지를 가로지르며 독특한 음색으로 울리는 처연한 고대풍의 음악, 스산하기 이를 데 없는 풍경, 고대의 장신구, 과도한 원경과 클로즈업이 반복되는 정적인 카메라의 형식,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에서의 핸드헬드 촬영법,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교차된 비명과 거친 숨소리의 광폭성 등은 무대 미학으로는 느낄 수 없는 독창적인 영상미학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널리 알려지지 않은 파졸리니.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영화감독으로서, 사상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가로서 거인적 생애에 걸맞은 비극영화가 바로 <오이디푸스왕>이다. 이 영화는 모로코에서 촬영했고 파졸리니는 에우리피데스의 원작을 시각적 표현으로 빼어나게 재현해 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재해석한 <메데아>(Medea, 1970)도 연출했다. ●